



바다와 맞닿은 천국의 화원 ‘거제 공곶이’

한반도의 최남단 거제도. 그중에서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예구마을 포구에서 산비탈을 따라 20여 분을 걸으면 꽃향기 가득한 환상적인 바다정원이 눈 앞에 펼쳐진다.

‘공곶이’는 거제8경의 마지막 비경으로 남도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이름난 곳이다. 따뜻한 봄이면 노란 수선화 물결과 푸른 몽돌해변이 어우러진 경이로운 풍경에 탄성이 절로 나온다. 수선화 한 다발을 들고 탁 트인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면 그대로 인생샷 완성이다.

거제8경의 마지막 명소, 천혜의 비경을 만나다

마을에서 공곶이로 가는 숲길은 숨을 헐떡일 정도로 가파르다. 하지만 길 중턱만 다다르더라도 곧 지친 마음은 눈 녹듯 사라진다. 중턱에서 내려다보는 예구포구마저 그림처럼 아름답기 때문이다. 언덕에 올라 내려다본 한려해상국립공원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다. 거제의 또 다른 숨은 비경이라는 내도가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다가온다. 공곶이는 관광지로 만들어진 장소가 아니기에 입장료는 따로 없다. 대신 편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. 아쉬움은 있지만, 그 덕에 잘 보존된 자연 그대로를 느낄 수 있어 더욱 보물 같은 곳이다.

노부부가 평생을 바쳐 가꾼 바다 화원

거제시 일운면 와현리에 위치한 이곳은 바다 쪽으로 툇 튀어나온 지형 탓에 공곶이라 이름 붙여졌다. 공곶이는 마을의 강명식(91)·지상약(87) 노부부가 50여 년 간 피땀 흘려 오직 호미와 삽, 곡괭이로만 일궈낸 자연의 농원이다.

수선화를 비롯해 동백나무, 종려나무, 조립나무, 팔손이 등 나무와

꽃만 해도 50여 종. 4만평이 넘는 농원 곳곳에는 노부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. 공곶이는 부부의 손끝에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숲 그 자체다.

천국의 봄을 만끽하다

공곶이는 찾길조차 닿지 않는 외지로 교통이 불편한 탓에 인적이 드물었다. 그러나 십여 년 전 영화 촬영지로 소개되는 등 각종 방송매체와 방문객의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는 대표 관광명소가 됐다. 수선화가 만개하는 3~4월이면 밀려드는 방문객들로 북새통을 이룬다.

입구에 다다르니 탁 트인 푸른 바다와 노란 꽃 물결의 조화가 상상 이상이다. 샛노란 수선화를 바라보며 몽돌 해안의 파도 소리를 듣고 있노라니 봄이 더욱 실감 난다. 입구 무인 판매점에서는 수선화 한 다발을 1천원에 판매하고 있었다. 주말과 공휴일, 관광객이 붐비는 날에는 금방 다 팔려 사기가 어렵다. 신문에 싸인 노란 수선화를 하나 골라 상자에 돈을 넣고, 쪽빛 바다를 배경 삼아 공곶이의 봄을 눈과 사진에 담아 본다. 눈길 주는 곳, 발길 닿는 곳곳마다 한 폭의 그림이 되는 공곶이에서 만끽하는 봄이야말로 천국이 아닐까. ❶



1 공곶이에 만개한 수선화 2 공곶이에서 바라본 내도

경남 최초 공공배달앱 배달올거제

배달 대행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
소상공인을 위해 만들어진 거제시 민관 협력 공공배달앱!



2021.
3.1. (월)
서비스 개시

배달올거제
감니데이~

사용자 혜택은 UP

모바일 거제사랑상품권 결제로 10% 할인 효과
연말정산 소득공제 30% 혜택
일부 가맹점 5% 추가 할인까지!



소상공인 수수료는 DOWN

3無 (중개수수료, 광고비, 입점비)

지역경제 살리는
착한 소비의 시작!

‘배달올거제’ 앱 다운로드하세요!

- 안드로이드는 플레이스토어에서 '배달올거제' 검색
- PC 인터넷 검색창에 '배달올거제' 검색해보세요!
- iOS 앱스토어에서는 출시준비중입니다.

거제시 음식배달앱 <배달올거제> 가맹점주님을 모십니다~!

- 신청자격** 거제시 소재 배달 가능 가맹점
- 문의처** (주)원큐 ☎1800-2788
☎(055)634-2788